

1350 명 참가자로 ‘3.11 반원전 후쿠시마 행동 2013’ 성공 개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2 주년인 3 월 11 일 오후 후쿠시마 시에 위치한 후쿠시마현 교육화 관 대홀에서 ‘3.11 반원전 후쿠시 마행동 2013’이 실행위원회 주최 로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달려 온 1350 명 참가자들이 분노가 넘치는 집 회와 그후 데모행진을 관철했다. 아베 정권과 자본가들은 ‘부흥’

캠페인과 후쿠시마 압살 시도를 해 왔다. 하지만 후쿠시마와 전국 노동자 민중은 그런 공격에 가감하게 맞섰다. 소리내고 행동에 일어섰다. “3.11 을 결코 잊지 않겠다! 잊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투쟁을 관철했다. 노동조합을 선두로 “월전 재가동 절대 허용하지 말자! 모든 원전 없애자!”라고 외치는 수십만 수백만명의 역사적 행동이 원전사 고 2 년만의 후쿠시마에서 시작된 것이다.



오후 12 시반에 공연이 시작되고 1 시 반에 본집회가 시작됐다. 주최자 인 사말에 나선 시이나 지에코 씨가 “우 리 집회에 대한 찬동이 3월8일 현재 일본 전국에서 408 명, 전세계에서 430 명이 왔다”라고 보고 했다. 그는 이어서 “8.6 히로시마, 8.9 나가사 키,5.15 오키나와를 기억해야되고 여 기 3.11 후쿠시마를 빼서는 안됩니다. 후쿠시마 제 1 원전사고는 아직 수습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추궁합시다. 3.11 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마음 속 으로부터 분노의 소리를 냅시다! 외칩시다! 3.11 후쿠시마 반원전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 지 않습니다. 오늘 집회와 데모행진을 성공적으로 진행합시다.” 라고 호소했다. 회장에 넘친 참가자들은 큰 박수와 환성으로 부응했다.

전국에서의 어필로 넓졌다. 원전 건설을 저지해 낸 주민, 원전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오마의 주민, 히로시마의 피폭자, 전국 농민회의, 오키나와 오스프레이 배치 반대투쟁 등 열 띤 보고와 결의 포명들이 이어갔다. 전국 농민회의 발언 때에는 산리즈카 반대동맹 시토 다카오 씨도 단상에 올라갔다.

메시지를 소개한 다음에 후쿠시마 땅에서의 호소가 이어졌다. 나미에초의 ‘희망목장’ 요시자와 마사미 씨는 “기금 우리는 역사적인 투쟁 속에 있다. 원전이 있는 세상과 작별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걸고 싸우겠다! 함께 가자!”라고 원전에 대한 분노를 토했다. 동료 미토 고쿠부 가쓰유키 씨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국철노동조합 고리야마공장지부 하시모토 고이치 씨는 “국철노동조합 고리야마지부로서 오늘 3.11 후쿠시마 행동에 대해 단체 찬동을 결정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어서 후쿠시마의 대학생·고등학생들이 단상에 올라가 “후쿠시마에서 살고 있는 학생으로 원전 반대 목소리를 계속 발신해 나간다”라고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결의를 나타냈다.

오후 2시 46분, 대지진이 발생한 시각에 맞추어 대지진으로 죽어간 분들에 대해 목령을 드렸다. “원전을 반드시 없앤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이 잘못된 사회를 근본으로부터 바꿔야 된다!” 참가자 전원이 그런 결의를 다짐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맹세를 다짐했다.

호소 마지막에 후쿠시마 진료소 의사인 후세 유키히코 씨와 사토 사치코 씨가 발언에 나섰다. 후세 씨는 “작년 12월 1일 진료소가 개원 됐다”고 보고하며 “모금을 더 많이 모아서 정말 누구든지 모여들 수 있는 큰 병원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 지원을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사토 씨는 “희망의 진료소가 출범했다.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희망 진료소를 잘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모금 어필 후에 이치카와 준코 씨가 집회 선언을 낭독하고 마지막에 ‘원전 필요 없다. 목숨이 소중하다’란 노래를 전원이 제창했다. 곧바로 데모행진으로 나갔다. 후쿠시마시 범화가을 가는 데모대오는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건물 창문에서 양손을 흔드는 사람들, 병원 앞에서는 백의 간호사 등 여성 노동자들이 손을

흔들어 성원했다. 행진 종점 후쿠시마역 앞 정리 집회에서 시이나 치에코 씨가 말했다 “이 땅에서 많은 분들 참가를 얻으면서 터질 듯한 원전 반대 목소리를 울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전세계를 향해 울릴 것입니다.”라고 승리의 기쁨이 마음 속 깊은 생각이 넘치는 호소를 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가슴에 새기면서 3.11 후쿠시마 행동을 마무리했다.

집회 선언

봄이 오는데도 농민들이 괭이로 일굴 수 없다.

어민들은 바다에서 닻을 내릴 수 없다.

낙농가들은 송아지 탄생을 즐거워하지 못하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피폭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

아이들의 목숨, 우리들의 일상, 모든 미래를 빼앗긴 후쿠시마의 현실.

질병,분단,착잡...시선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엄중한 현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자.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계단으로 삼아
넘어 가자.

오늘 우리는 '3.11'을 반원전 기념일로 삼아

8.6 히로시마 8.9 나가사키를 따르며 핵무기,원전 그리고 모든 핵을

폐기할 것을 다짐하는 날로,

'3.11'을 잊지말자고 하는, 잊을 수 없게 만드는 날로 하는 것을

시민,농민,어민,노동자들과 함께 여기 선언합니다.

2013년 3월 11일